

자금 조달 시동건 큰 손들... 회사채시장은 벌써 봄?

롯데·현대차·신세계·LG그룹 등 대기업 연초부터 회사채발행 속도 올해 설비투자 감소 예상되지만 지배구조개편 등 자금수요처 많아

주요 대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에 속속 뛰어 들고 있다. 올해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커졌고,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자금 수요도 있어 발 빠른 기업들은 자금조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부분 'AA'급 이상의 높은 신용등급에 그룹 후광까지 등에 업은 발행사들은 기관투자자의 풍부한 수요까지 더해지고 있다.

대기업인 롯데그룹, LG그룹, 현대자동차그룹이 연초 공격적인 회사채 발행 움직임을 보인다.

15일 투자금융(IB)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현대제철, 신세계, 현대오일뱅크, LG유플러스 등 AA등급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한 수요예측에 나선다.

SK증권 김진주 연구원은 "연초부터 회사채 시장이 달아올랐다"면서 "AA등급의 우량등급 회사채 수요예측이 진행되고, 기관들의 자금집행이 이어지면서 예년과

(회사채 수요예측 현황)

종목명	신용등급	수요예측일	수요예측 (단위: 억원)
AJ네트웍스28-1	BBB+	2018-01-15	300
AJ네트웍스28-2	BBB+	2018-01-15	1,000
현대제철123-1	AA0	2018-01-15	800
현대제철123-2	AA0	2018-01-15	1,500
현대제철123-3	AA0	2018-01-15	700
신세계132-1	AA0	2018-01-16	2,000
신세계132-2	AA0	2018-01-16	1,000
SK브로드밴드	AA-	2018-01-24	1,000
쌍용양회	A-	2018-01-xx	250
한화에너지	AA-	2018-01-xx	1,500
롯데렌탈	AA-	2018-01-xx	2,000
AJ렌터카	A-	2018-01-xx	500
현대오일뱅크	AA-	2018-01-xx	1,500
LG유플러스	AA0	2018-01-xx	3,000

/자료=Freebond,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신한금융투자

같은 훈풍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첫 수요예측을 실시한 롯데철성음료는 '부정적' 등급전망에도 모집금액(2000억원)의 두배가 넘는 자금이 몰렸다.

수요예측 결과 5200억원 가량의 기관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3년물은 공모액의 두 배인 3000억원, 5년물은 네 배인 2000억원 어치의 수요가 확인됐다. 롯데철성과 주관사는 투자 수요를 고려해 최대 2500억원으로의 증액발행을 검토

중이다.

연초 시장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자금 수요가 있는 기업들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 수요는 적다. 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설비투자 성장률이 올해 12.8%에서 내년엔 5.1%까지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지배구조개편 등 자금 수요 요인은 많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대기업 지배구

조 개편'을 첫 번째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더욱 철저한 혐의 입증과 분석을 통해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고 중소기업의 거래 기반을 훼손하는 일감 몰아주기를 이제는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논어에 나오는 '위산일궤(爲山一궤-산을 쌓는 것은 한 삼태기의 흙에 달려 있다)'를 인용하며 "작은 노력들이 쌓이고 쌓이면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회사채 시장 주요 10대 그룹(삼성·현대차·SK·LG·롯데·포스코·GS·한화·신세계·CJ)이 연초 선발행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들 10대 그룹의 회사채 발행 니즈를 추정해 결과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BITDA) 기준으로 11조9530억원 가량의 발행 수요가 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OCF) 기준으로 31조554억원이다.

그룹별로는 삼성그룹이 OCF 기준으로 19조1370억원의 회사채를 순발행 할 여건이 된다. EBITDA기준으로 3조810억원의 수요가 있다. 다만 2분기 기준 7조원 가량의 현금자산과 최근 발행 실적을 고려할 때 실제 순증 발행은 크지 않을 것으로 IB업계는 보고 있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 수요가 있다.

OCF 기준 3조8890억원, EBITDA 기준 2조3180억원의 순증 발행이 예상된다. 다만 SK그룹은 약 6조1000억원 가량의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규모 순증 여부는 불투명하다.

10대 그룹 중 가장 수요가 큰 곳은 CJ그룹이다.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서 2020년까지 물류, 바이오, 문화산업에 약 36조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에 2018년 8조1000억원 가량의 투자를 예상할 때 약 6조원대(EBITDA 기준 6조170억원, OCF기준 6조420억원)의 회사채 발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신세계는 EBITDA 기준 5370억원, OCF 기준 1조640억원의 발행 수요가 있다.

LG는 9410억원(이하 OCF 기준), 포스코 2440억원, 한화 2370억원의 순발행 니즈가 있다.

신한금융투자 김상훈 연구원은 "국내도 금리 인상 시기에 접어들 만큼 오는 2월 설 연휴 전후로 회사채 발행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상반기 발행이 집중된 이후 발행량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外人, 지난해 국내 주식 10조 순매수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IT 중심 매수채권시장에선 9조4000억원 순투자

외국인이 지난해 국내 주식을 10조원 넘게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해 상장주식 10조2000억원을 순매수했다. 2016년 12월부터 시작된 매수세가 7월까지 지속되면서 2016년 12조1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외국인은 기업 실적개선과 수출 호조에 힘입어 IT주를 중심으로 사들였다. 보유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635조9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32% 증가했고,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1.2%에서 32.9%로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미국(13조2000억원)과 유럽(1조4000억원)에서 순매수한 반면 중동(-3조3000억원)과 아시아(-1조)는 순매도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펀드 자금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대규모의 순매수가 이뤄졌으며, 유럽에서는 아일랜드(1조4000억원), 룩셈부르크(1조2000억원) 등이 국내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은 지난해 채권시장에서는 9조4000억원을 순투자했다. 3차례의 미국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중 대규모 매수에 나서며 2016년 순유출(-12조3000억원)에서 순투자로 전환했다.

상장채권 보유규모는 지난해 말 98조5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0.3% 증가했다. 전체 상장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6%에서 5.9%로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아시아(6조6000억원), 중동(4조7000억원)에서 순투자한 반면 유럽(-1조4000억원), 미주(-6000억원)에서 순유출됐다. 종류별로는 국채와 통안채에 주로 투자했고, 잔존만기 1년 이상 5년 미만 채권과 5년 이상 채권에 순투자했다. /김문호 기자

서울 부럽지 않은 수도권 분양열기 '후끈'

전통부촌 분당·과천 vs 신흥부촌 하남·위례

노후 아파트 많은 분당·과천 지역 새 아파트·재건축 4485가구 공급 프리미엄 붙은 하남·위례 3480가구

올 상반기 경기도 분당·과천과 하남·위례에서 분양대전이 펼쳐진다.

이곳은 서울 강남과 가까운 데다 주거여건이 양호해 인기가 높은 지역이다.

1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분당과 과천에서는 상반기 4485가구가 분양된다. 지역별로는 분당은 506가구, 과천은 3546가구다. 하남과 위례에서는 상반기에 3480가구가 나온다. 하남 감일지구 2603가구, 북위례 87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위례의 경우는 민간임대 전환 물량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올 상반기 분양시장은 분당과 과천, 하남과 위례 등이 경쟁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당과 과천은 지난 2001년 이후 수도권 집값 1·2위를 기록하고 있는 전통적인 수도권 부촌이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신규 공급이 부족해 노후아파트가 많다. 분당은 10년 동안 3곳, 과천은 1곳이 공급됐다. 때문에 새 아파트 공급에 벌써부터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분당에서는 정자동에 15년만에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 포스코건설은 2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일대 분당 가스공사 이전부지에 들어서는 '분당 더샵파크리버'를 분양한다. 단지는 공동주



지난 12일 문을 연 금호건설 '한강 금호어울림' 견본주택에는 주말 3일 동안 1만여명이 다녀갔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940만원대로 책정됐고, 계약자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과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강 금호어울림 견본주택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들을 살펴보고 있다. /김호건설

택,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복합단지다. 아파트 506가구(전용 59~84㎡)와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 165실(전용 84㎡)이 분양된다.

과천은 주공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된다. 먼저 대우건설은 오는 2월 과천 주공7-1단지를 재건축한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씨밋' 1317가구(전용 59~111㎡) 중 57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SK건설과 롯데건설은 3월 과천주공 2단지를 재건축해 2129가구 가운데 514가구(전용 59~111㎡), LH와 GS건설은 상반기 중 과천시지정보타운 내 S9블록에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분양' 433가구를 분양한다.

하남과 위례에서는 감일지구, 북위례

등의 분양이 본격화된다. 하남과 위례의 입주단지는 역원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가 되고 있을 정도다. 하남에서는 감일지구의 첫 민간분양이 시작된다.

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건설·태영건설 컨소시엄은 1월 하남 감일지구 3개 블록(B6·C2·C3)에 '하남 포웰시티'를 분양한다. 단지는 감일지구 내 3개 블록(B6·C2·C3)에 총 24개 동 2603가구(전용 73~152㎡) 규모로 조성된다.

위례신도시에서는 호반건설이 이달 A3-5블록에 선보일 699가구를 민간임대료 공급하고, 우미건설이 6월 A3-4b블록에서 '위례신도시 우미린 1차' 877가구를 분양한다. /이규성 기자 peace@

해외주식 적립식 가입하면 가전제품 쏜다

KB증권 '뭉쳐야 번다' 이벤트

KB증권은 오는 3월 30일까지 해외주식 적립식 이벤트 '뭉쳐야 번다'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해외주식 적립식 매수 서비스 개편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기간 내 해당 서비스 신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 및 사은품 증정 혜택을 제공한다.

개편된 서비스는 KB증권 리서치센터가 선정한 해외주식 대표주 포트폴리오를 소개하고 가입고객에게는 정기적인 투자 콘텐츠뿐만 아니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KB증권은 이벤트를 통해 월 50만원, 30만원, 10만원 이상 서비스 가입 고객 중 적립금액별 추첨을 통해 선정된 각 1명에게 빨래건조기(월 50만원 이상)·무선청



소기(월 30만원 이상)·헤어드라이기(월 10만원 이상) 등 경품을 증정한다. 또한, 첫 거래 고객 선착순 200명에게 5000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을 증정하고, 누적적립금액 30만원·90만원·150만원 이상 고객에게 1만원(30만원 이상)·2만원(90만원 이상)·3만원(150만원 이상)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김문호 기자

신한금융투자 '코스닥 성장주 투자 펀드' 선포

신한금융투자는 '현대인베스트먼트 코스닥 포커스 펀드'를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인베스트먼트 코스닥 포커스 펀드는 코스닥 시장의 성장성에 중점을 둔 종목 발굴을 통한 시장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코스피 종목

을 편입하지 않으며 철저히 종목별 접근을 통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추구한다. 저PER 및 저PER 등의 재무비율보다 기업의 '성장성'에 주해 코스닥 시장의 기업 성장성이 높은 50~70개 수준의 종목을 선별해 집중 투자한다. /김문호 기자

